



레이던 대학교 한국학과 플타임 인턴 모집 안내

1. 담당 업무 및 근무 조건

가. 모집 인원: 1-2 명

나. 계약 기간: 2025 년 9 월 1 일 ~ 2026 년 6 월 30 일 (두 학기, 10 개월)

※ 8 월 중순 이후 네덜란드 입국

다. 담당 업무: 주 38 시간 플타임 근무 (주 평균 12 시간 한국어 수업 + 한국어 수업
관련 업무 보조, 한국학과 행사 보조, 본인 학업 관련 활동 등)

라. 근무 조건

- 1) 왕복 이코노미 항공편 제공,
- 2) 숙소 제공: 원룸 (부가적 공과금 없음. 가족 동반 불가/가족 비자 지원 불가).
- 3) 세후 약 월 960 유로 생활비 지급 (변동 가능)
※ 의료보험비는 약 월 60 유로 본인 부담.
- 4) 사무실 제공 (6 인실)
- 5) 인턴십 기간 중 휴가 신청 불가하나 방학 기간 자유 시간 있음.

2. 지원 자격

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및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 과정생.

나. 2025 년 봄학기 지원 당시 석사 과정 2 학기 이상 재학생 - 석사 과정 입학 전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는 1 학기생의 경우 이메일로 지원 자격 문의 바람.

다. 인턴십 기간 중 대학원생 신분 유지 (휴학 포함): 2025 년 8 월 혹은 2026 년 2 월
졸업 예정자 지원 불가. 지원을 원할 시 졸업 유예를 해야 함.

라. 인턴 기간 중 휴학이 가능한 학생 (대학원 휴학 규정 확인 요망).

마. 한국어 원어민 화자.

바. 1990 년 이후 출생자.

사. 해외 거주 결격 사유가 없고 해외에서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학생.

아.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

자. Internship Education Plan 에 따른 지도와 멘토링에 성실히 응할 학생.

3. 문의

한국학과 교수 남애리 (a.r.nam@hum.leidenuniv.nl)

※ 12 월 12 일 목요일 Zoom 인턴십 설명회를 갖습니다. 전/현 인턴 선생님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학과 공지를 참조해 주세요.

4. 지원 절차

| | | |
|------|--------|---|
| 1 단계 | 지원서 작성 | 아래의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지원서 최종 마감일은 1 월 5 일 일요일입니다. https://forms.gle/W4DJ2UPxHF3eFLW8 지원서 내용: 이름, 생일, 연락처, 소속 및 재학 학기, 이수 과목, 영어 실력, 관련 경력, 특기 |
| 2 단계 | 서류 제출 |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하시면 1 월 6 일 혹은 그 이전에 지원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는 온라인 폴더 주소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서류 제출 최종 마감일은 1 월 24 일 금요일입니다.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u>제출 서류 (PDF 업로드)</u> (1) 영문이력서(CV) (2) 국문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한국어 교육관 (teaching philosophy), 한국어 교사로서의 포부 등 (3) 학부 성적표 (국문), 국문 대학원 성적표, 영문 대학원 성적표 (4) 기타 (필수 아님): 공인영어성적표, 한국어 교육 관련 수료증, 자격증 등. (5) 직접 제작한 수업계획서 및 수업 자료 등 한국어교육 관련 포트폴리오 제출 가능. |

5. 선발 절차

| | | |
|------|-------|---|
| 3 단계 | 현장 시강 | 시강예정일: 3 월 18 일에서 3 월 28 일 사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20 분 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시강 과제 선택 및 시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류제출 마감 후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
| 4 단계 | 면접 | 시강 후 1-2 일 안에 한국어와 영어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

LIAS

<http://www.hum.leiden.edu/lias/>

PO Box 9515, 2300 RA Leiden, Netherlands
+31-71-527.2210 / 2171, lias@hum.leidenuniv.nl

6. 인턴 경험담

6기 인턴 이민경:

안녕하세요? 22-23 레이던 대학교 인턴으로 파견되어 행복하고 보람찬 나날을 보낸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이민경입니다.

처음에 인턴십을 지원했을 때는 10 개월이라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고 네덜란드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또한, 생소했던 자기소개서와 영문 이력서 작성, 수업 시연, 그리고 면접까지의 모든 준비 과정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인턴십을 마친 지금, 용기를 내어 인턴에 지원한 제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석사 과정생의 신분으로 외국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유럽 대학교의 전공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이 특별한 경험은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에도 제게 큰 자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하신 선생님께 체계적으로 배우고 여러 학과 행사에 참여하며 저는 한국어 교사로서 참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러 전공 수업을 들으며 한국어교육에 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겠지만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해 보아야 '교육'이 본인의 적성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네덜란드에 오기 전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적어도 '이 일을 할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알아가는 그 소중한 깨달음의 경험을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꼭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지원을 망설이실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나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바쁜 학기 중에 시연과 면접까지 준비하는 것이 무척 버겁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설령 떨어지더라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 보고 시연과 면접을 준비하는 경험 자체가 소중한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원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 앞에서 짧게나마 수업 시연을 해 보면서 제가 가르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고, 면접을 진행하면서 저의 부족한 점과 한국어 교사로서 지녀야 할 자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원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주변 선생님들께 조언도 구하고 응원도 받으면서 꼭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덜란드에서 보낸 시간이 평생 잊히지 않는 반짝이는 순간들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게 만들어 주는 사랑스러운 학생들, 인턴들의 성장을 위해 귀중한 조언을 아낌없이 나눠 주시는 선생님들, 초보 교사로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기쁨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가는 동료 인턴 선생님, 그리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 레이던. 이 모든 것들이 레이던에서의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 행복한 경험을 꼭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기 인턴 정승주: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생이자 레이던 대학교 한국학과 2022-2023 년 인턴인 정승주입니다. 글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턴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수업에 밤잠도 설쳐 보고, 맘처럼 흘러가지 않는 수업에 속으로 실컷 당혹스러워하다가도,

LIAS

<http://www.hum.leiden.edu/lias/>

PO Box 9515, 2300 RA Leiden, Netherlands

+31-71-527.2210 / 2171, lias@hum.leidenuniv.nl

어떤 날에는 이제는 좀 선생님 티가 난다며 스스로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적고 보니 초보 선생님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 있네요.

현장 경험이 없었던 제가 레이던 대학교에서 인생 첫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선생님들과의 팀티칭을 통해 어떻게 해야 수업을 치밀하게 설계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으며 다양한 수업 도구들을 통해 어떻게 해야 유럽권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꼼꼼하고 정확한 피드백을 통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선생님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어 회화 동아리 탁잡담처럼 수업 외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해외에서 현장 경험을 쌓고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업 경험이 전무하더라도 시강과 면접을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LIAS

<http://www.hum.leiden.edu/lias/>

PO Box 9515, 2300 RA Leiden, Netherlands

+31-71-527.2210 / 2171, lias@hum.leidenuniv.nl